

## 9. “번역 유형분류를 위한 제안” (이재원 2003, 인문과학연구 11)

### 1. 번역은 창작

(일반적으로) 번역이란 1차 언어(source language)의 원문을 2차 언어(target language)의 번역문으로 만들어 ① 이 두 언어의 표면적인 내용이 대략적으로 비슷해지고, ② 번역문의 구조가 지나치게 왜곡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원문의 구조가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확실히 보존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의 일반적 정의는 “표면적 내용”, “대략적”, “지나치게 왜곡되지 않은 범위”,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보존” 등의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언제나 논란을 야기시킨다. 또한 번역에 대한 이런 제한적인 개념이 번역을 낮게 평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번역이란 낮은 차원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개별언어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언어적 중간세계(sprachliche Zwischenwelt)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경우 언어와 언어 사이에서 수행되는 번역은 언어들 사이의 1:1의 대응을 극복한 창작의 영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번역이란 두 언어에 존재하는 낱말들의 짝짓기가 아니다.<sup>2)</sup> 독일어의 성적평가라는 예를 들어보자.

sehr gut	gut		genügend		nicht genügend	
sehr gut	gut	genügend		mangelhaft		ungenügend
sehr gut	gut	befriedigend	ausreichend	mangelhaft		ungenügend

독일어의 성적평가 등급

홀볼트에 의하면, 언어 간의 상이성은 음성의 상이성의 아니라,

“세계관 그 자체의 차이이다. 여기에 바로 모든 언어 연구의 이유와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sup>4)</sup>

이러한 홀볼트의 언어관은 1900년대에 들어와서 독일의 내용중심문법학파의 핵심강령으로 채택되는데, 이들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언어적 중간세계 (die sprachliche Zwischenwelt)”, 즉 “모국어적 세계상 (das muttersprachliches Weltbild)”<sup>5)</sup>이다. 즉, 외부세계의 사물은 인간에 의해 정신적인 대상으로 재구성될 때만이 사고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 바이스게르버(L. Weisgerber)에 의하면 - 정신적 중간세계(die geistige Zwischenwelt)가 된다. 이제 우리들은 ‘모국어적 안경(muttersprachliche Brille)’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간세계에 속하는 것으로 식물계를 들 수 있다. 잡초는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계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식물이 인간을 통하여 비로소 잡초가 되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되는 문제로는 이러한 중간세계의 창조자가 개인인가, 인류 전체인가, 혹은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것이 개인이라고 가정할 것 같으면, 개개인의 중간세계는 다른 사람의 중간세계와 구별될 것이다. 또한 그것이 인류 전체라고 가정할 것 같으면, 단지 한 개의 중간세계만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예들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다. 독일어의 'Reis'는 한국어의 '쌀', '벼', '밥'을 동시에 의미하면 한국어의 '고사리'와 '미나리'는 독일어에서 아무런 일상적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잡초'에 속하고 심지어 '고사리'는 독초로 분류되기도 한다. 언어학자의 목표는 각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언어적 중간세계의 규명에 있는 반면에, 번역가는 이러한 중간세계를 제압할 때만이 훌륭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번역이 창작의 부류에 들어갈 수 있는 멋진 반증이 될 것이다.



Michael J. Fagan  
2018, 7  
11/20/52

- 
- ▶ **1959-1965** Studies in English and American Language and Literature, Classical Philology, Philosophy, Gener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and Literature at the Universities of Cologne and Bonn
  - ▶ **1965-1970** University Assistant at the Universities of Bonn, Giessen, and Cologne
  - ▶ **1970-1972** Dozent
  - ▶ **1972 ff.** Professor (chair) of English at the University of Essen
  - ▶ **1976-1977** Visit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Hamburg
  - ▶ **1977** Co-found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History of Rhetoric (ISHR)
  - ▶ **1977-1979** First secretary-general of the ISHR
  - ▶ **1986** Visit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Saskatchewan, Canada
  - ▶ **1989** Foundation of the Centre for Rhetoric and Renaissance Studies (CRRS) at the University of Essen and as its director organizer of several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Conferences:
  - ▶ **1993** Associate editor of *Rhetorica*, the official publication organ of the ISHR
  - ▶ Since October **2004** Professor Emeritus

## 2. 번역의 단위

번역단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sup>6)</sup> 이를테면, 낱말, 문장, 문단, 장, 절, 텍스트 문화 등이다. 그런데, “번역의 단위가 텍스트이고, 텍스트라는 큰 틀 안에서 특정 번역 상황에 따라 번역자가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sup>7)</sup>이라면, 이때 번역의 토대는 언어연구의 토대와 동일한 기본 구조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텍스트언어학 초창기의 텍스트 개념은 “오리지널한(originär) 언어기호”, “첫 번째(erst) 언어기호”,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oberst) 언어기호”<sup>8)</sup>이기 때문이다.<sup>9)</sup>



### 3. 체계 수사학에 의한 번역유형

|

번역이 출발언어와 도착언어사이의 1:1대응이 아니라면, 두 언어 사이의 다양한 변형의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짝짓기 방식의 구분을 체계수사학의 수사법 구분 방식에서 빌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변형의 방식으로 이것만큼 합리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플랫 H. F. Plett의 주저 “체계 수사학. 구상과 분석(Systematische Rhetorik: Konzepte und Analysen”(2000))에 따르면, “수사학은 하나의 예술”이며, “여기서 예술이란 기술(그리스어 τέχνη)을 뜻하고, 이 기술이 생산하는 것은 어떤 인공물이다: 즉 [기술/예술이란] 본성[또는 필연]이나 우연이 아닌 인간의 계획적인 합리성에 기인하는 어떤 것이다.”<sup>13)</sup> 그래서 플랫은 “수사학은 체계성 Systemcharakter을 가진다”<sup>14)</sup>라는 주장을 펼치고, 이러한 수사학의 체계성을 수사학의 분야 중에서 표현력 elocutio, 그 중에서도 특히 무늬 figurae<sup>15)</sup>에서 찾으려고 시도했는데, 이것이 플랫의 체계 수사학이 지닌 전체적인 내용이다. 굳이 플랫이 체계 수사학을 무늬 부분에 우선적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늬가 수사학의 전체를 대신하던 시기가 있었을 정도로 중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sup>16)</sup> 플랫은 300여 개나 되는 수사학의 무늬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모리스 Ch. W. Morris(1972)에게서 빌려온, (기호) 통사 (semio-)syntaktisch 모델이 필요로 하는 두 개의 층위, 즉 ‘언어차원’과 ‘언어조작’의 층위를 우선적으로 상정한다.

언어차원 언어조작	규칙손상				규칙강화
	1. 첨가	2. 삭제	3. 대체	4. 치환	5. 등가
1. 음운론적					
2. 형태론적					
3. 통사론					
4. 의미론					
5. 자소론					
6. 텍스트적					
7. <u>간텍스트적</u>					



## 3.1. 첨가

|

체계수사학적 번역방법 ‘첨가’는 번역자가 출발언어를 그대로 도착언어로 번역할 경우, 도착언어권 독자에게 너무 생소할 경우를 고려해서 출발언어에 없는 일정한 정보를 번역자의 판단에 의해서 추가하는 경우들을 일컫는다.

### 3.1.1 본문에 첨가

#### 3.1.1.1. 형태소 첨가

1945년 한반도의 통일 이전에도 통일국가가 있었으므로 ‘통일’을 ‘reunification’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

원문: 한반도 통일

번역문: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3.1.1.2. 낱말첨가

#### 3.1.1.2.1. 문법

다음은 황동규 시인의 ‘풍장’의 독일어 번역문인데 한국어의 표층구조에 나타나지 않은 주어를 독일어 번역문에 첨가했다.

원문: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다오/섭섭하지 않게/웃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체로/손목에 달아놓고/아주 춥지는 않게/가죽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군산에 가서/검색이 심하면/곰소쫄에 가서/통통배에 옮겨 실어다오/가방 속에서 다리 오그리고/그러나 편히 누워 있다가/선유도 지나 통통소리 지나 ...

번역문: ..., das Tuckern der Schiffsmaschine hören/während an der Insel Seonju vorbeifahren.

다시 말해서, ‘가방 속에서’가 ‘가방 속에 누워’로, 그리고 주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wir(우리)’가 첨가되어 있다.<sup>18)</sup>

### 3.1.1.2.2. 세상지식

원문: It was the Minoans who had elaborat religious ceremonies involving bull worship that gave rise to the familiar myth of the Minotaur and the Labyrinth. (Don't Know much about Geography: 45).

번역문: 미노아인은 황소를 숭배하는 복잡한 종교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황소머리에 사람의 몸집을 가진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가두기 위해 미노스왕이 만들도록 명령했다는 미국의 전설도 이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한국지리: 44).

### 3.1.1.2.3. 문화

다음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발췌한 문장이다.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는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는 미국의 관계에 따라 결혼 후 스칼렛 헤밀턴이 되자, 다시 처녀 시절도 돌아갔으면 하고 바란다. 번역문에서는 결혼을 해도 처녀 시절 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국 독자들을 위해 ‘처녀’라는 단어를 본문에 추가하였다.<sup>19)</sup>

원문: if only she were Scarlett O'Hara again,.... (Gone with the Wndi: 188).

번역문: 만약 그녀가 다시 처녀 스칼렛 오하라가 되어,....

### 3.1.1.3. 문장첨가

원문: 삼한사온

번역문: three cold, four warm days 또는 three consecutive cold days a four consecutive warm days which characterize the Korean winter.

### 3.1.2. 역주

대부분의 소설 번역은 역주를 본문 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각주는 과학 서적 등의 번역에서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어 호프스테터의 “괴텔, 에셔, 바흐”를 번역한 박여성은 번역서의 군데군데 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엄청난 수의 역주를 달고 있다. 다음이 그중의 하나이다.<sup>20)</sup>

번역문: “그러나 부분적인 동형관계란 무엇인가? 이것은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그 질문은 기호그물과 그 격발 패턴을 표상하는 적절한 방법론을 어느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워졌다. 종종 그러한 기호그물의 일부분이 그려질 경우가 있는데, 이때 모든 기호는 출입의 절점으로서 표상되며 호선으로 연결된다.” (역주: 예를 들면 R. A. de Beaugrande 및 W. U. Dressler, Introduction to Textlinguistics(1981)에 있는 의미망(105-108)을 참조하라.)

## 3.2. 삭제

### 3.2.1. 낱말삭제

#### 3.2.1.1. 문법적 삭제

##### 3.2.1.1.1. 소유대명사 삭제

한국어에서는 소유대명사도 자주 삭제된다.

원문: Plato addresses his letter to the companions and friends of Dion.

번역문: 플라톤은 디온의 친구 및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영어의 소유대명사가 언제나 한국어 번역문에서 삭제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때론 그대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주격으로 (his errors → 그가 저지른 실수), 혹은 목적격으로 (her admirers → 그녀를 찬미하는 사람들) 번역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낱말의 문법적 대체에 속한다.

### 3.2.1.1.2. 주어 삭제

평서문의 경우 영어나 독일어에는 반드시 주어가 들어가야 만이 반듯한 문장이 된다. 만약 영어에서 주어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명령문으로 간주되고, 독일어에서는 명령문이나 조건문이 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자주 생략된다. 그러나 번역에서 주어삭제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다음과 같은 예에서 살필 수 있다.<sup>23)</sup>

일반적으로 우리말의 특성에 따라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어 삭제도 요령있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킬리만자로의 눈”의 번역본에는 “빠리에선 어디 머물렀지?”라고 해리가 여자에게 묻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얼핏 들으면 그녀가 혼자 빠리에 갔을 때 어디에 묵었느냐는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빠리에 갔을 때 우린 어디에서 묵었지?(Where did we stay in Pasis?)”의 잘못된 번역이다. 무턱대고 주어를 없애 버리고 나니까 빠리에 갔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진 것이다. 주어를 생략하는 바람에 앞뒤가 맞지 않은 예가 또 한 군데 있다.

“기분은 좀 어떠세요?”

여자가 물었다. 목욕을 마치고 천막에서 나오는 참이었다.

“좋은데”

얼핏 읽으면 목욕을 하고 나오는 남자에게 여자가 기분을 물으니까 남자가 개운해서 좋다고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와 정 반대다. 해리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기도 힘든 형편이니 목욕을 할 수도 없는 처지가 아닌가. 원문은 이렇다.

“How du you feel?” she said. She had come out from the tent now after her bath.”

“All right”

### 3.2.1.1.3. 복수형 태소 ‘들’ 삭제

“우리말의 체언에는 수(數) 곧 단수나 복수를 나타내는 낱말이나 접미사가 발달되어 있으나 그것이 문법범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sup>24)</sup>

원문: Some of the largest and most elaborate computers tied into the Internet are located at government offices and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번역문: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는 대형 컴퓨터들은 전 세계의 정부 기관이나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 3.2.1.2. 상황적 삭제

3.1.1.2.1.에서 예로 들었던 ‘풍장’의 독일어 번역본에 한 낱말이 삭제된 부분이 있다. 번역가의 말에 귀 기울여 보자: “제3행과 4행의 <..... 전자시계는 가는 체로/손목에 달아놓고는>는 <..... mit der tickenden Uhr am Arm>으로 간단히 줄였다. 시인은 베터리가 다할 때 까지 가는 <전자시계>의 속성, 즉 아직은 삶에 머물러 있(고 싶)다는 이미저리를 나타내려 한 것이지만, 번역에서는 요사이 거의 모든 시계가 전자시계인지라 특별히 그 점을 강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또 시계의 똑딱거림이 흔히 시간의 경과를 비유한다는 점과 또한 심장이 뛰는 것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는 점으로 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진 영속성을 보다 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줄인 것이다.”<sup>25)</sup>

텍스트성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출발언어권 독자들과 도착언어권 독자들과의 정보량의 차이에 의해서 삭제와 첨가 등이 발생한다. 다음의 경우는 출발언어권의 독자들보다 도착언어권의 독자들이 훨씬 광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출발언어권의 특정 정보들이 생략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정보들이 생략되지 않고 전달된다면 어떤 특이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정보를 너무나도 상세하게 주었기 때문이다.

원문: It was written not for the Court, however, but for the secret perusal of the Queen, and he used the symbols of the phonetic Korean alphabet. (The Living Reed: 24)

번역문: 그러나 왕비가 은밀하게 검토할 예정일 뿐, 국왕께 올리는 글이 아닌 만큼 그는 한글로 써내려갔다. (살아있는 갈대: 19)]

### 3.2.1.3. 문화적 삭제

또는 출발어의 낱말의 낱말이 도착어에 없는 경우 다른 표현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텍스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과감히 생략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에서 번역자는 방문객들이 음식을 만들어 오는 모임인 ‘potluck supper’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만큼 관계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생략하였다.<sup>26)</sup>

원문: My brother and I went faithfully to Sunday school and were usually back at church at least once more during the week for youth group meetings, athletic competitions, potluck suppers, or play rehearsals(It Takes a Village: 26-27).

번역문: 남동생과 나는 주일 학교에 착실하게 다녔습니다. 청소년 모임, 운동 경기, 연극 리허설 때문에 보통 주 중에도 한 번 이상은 교회에 가곤 했습니다. (집밖에서 더 잘 크는 아이들: 26이하).

### 3.2.3. 각주삭제

보그랑데·드레슬러(1981, 42 이하)의 아래와 같은 한국어 번역본에는 “수사학 개념인 착상을 참조할 것”이라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삭제가 반듯한 번역을 위한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번역자의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전문술어에 대한 지식의 결여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 생산의 첫 번째 국면은 보통 플랜작성 Plannung이 된다. 텍스트 생산자는 텍스트를 통해서 지식을 배포한다든지, 어떤 한 계획에 동의를 구하는 등의 어떤 목표를 추구할 의도를 갖고 있다. 텍스트 생산이란 주된 목표로 가는 경로상 하나의 부목표인 셈이다. 수단-목적-분석을 통해서 텍스트 생산자는 생산 가능한 여러 텍스트 가운데 어느 텍스트가 현 상태와 목표 상태간의 차이점을 줄이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할 것인가 산정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텍스트 유형을 선택한다.<sup>28)</sup>

### 3.3. 대체

번역의 상황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경우가 대체이다. 어쨌든 출발어와 도착어의 반듯한 짝짓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3.3.1. 낱말대체

##### 3.3.1.1. 상위어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단어의 의미가 구체화 될수록 일반적으로 일대일 대응어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한국어 ‘가야금’에 대한 영어의 일대일 대응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야금’의 상위 개념어인 ‘악기’에 대한 영어 대응어는 ‘musical instrument’이다. 다음 예에서 번역자는 ‘banjo’라는 악기가 도착언어권 독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야기의 흐름상 상위 개념어인 ‘악기’로 교체해도 저자가 원하는 효과는 달성된다고 해석하여 상위 개념어인 ‘악기’로 교체하였다.<sup>29)</sup>

원문

A: I'm running late. But since I'm a vice president you'll have to wait in the hallway. You'll be late to judge your relative worth by observing what things I do while you wait

B: He's teaching himself the banjo. (Dilbert Principle: 34).

번역문

A: 내가 늦었죠. 하지만 난 부사장이니까, 여기 복도에서 기다리도록 해요. 당신들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겠죠.

B: 악기를 익히고 계시는데요. (딜버트의 법칙: 53)

### 3.3.1.2. 하위어

원문: Zenith, a South Korean-controlled TV maker,.... (NWE, 1996년 6월 3일: 42).

번역문: LG전자 산하의 TV메이커 제니스는 ... (뉴스위크 1996년 6월 5일: 54).

출발언어권 독자에게는 관계성이 낮지만 도착언어권 독자에게는 관계성이 높은 정보라면 원문에 특정 정보가 없어도 번역문에는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의 대부분은 아래와 같이 도착언어권과 관련된 정보이다.<sup>30)</sup>

### 3.3.1.3. 유의어

원문: 청포도

번역문: white grape

같은 포도라도 한국 사람들 눈에는 파랗게 보여 ‘청’포도이나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다른 포도보다 색깔이 옅으므로 ‘백’포도라고 한다. 독일어에 “grüne(초록) Ampel”을 “푸른 신호등”으로 번역하는 것은 원래 한국어에 “초록”이라는 낱말이 없음에 유래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마찬가지로 들판도 푸르다. 한국어에서 초록색의 결여는 무지개색을 ‘오색영롱한’ 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 3.1.4. 고유어

출발어의 고유명사를 목표어의 사정에 맞게 다른 고유명사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괴델, 에셔, 바흐”의 저자인 호프스테터는 친절하게 이런 경우를 번역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번역자의 역자후기에는 이런 사항이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sup>31)</sup>

원전과 함께 호프스테터 교수의 해설이 붙은 노트를 구했다. 저자는 번역이 난감하리라고 예상되는 곳, 문화적 배경, 자연과학의 전문개념, 개별 언어로 번역할 때 감안해야 할 의미성분, 목표언어의 정황을 참작하여 맥락이 통하는 범위 안에서 번역자가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친절히 그의 지침(그의 노트에는 일관되게 local change possible 또는 recommended라고 쓰여 있다. 이때 말하는 local이란 ‘국지적[局地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해당하는 목표언어의 사정에 맞게’라는 맥락적 의미를 가진다)을 그 노트 속에 적어놓았다. 그래서 이 번역서에는 박찬호와 서울, 평양, 강원도 등 .....이 나오는 것이다. 이 책의 번역이 이 정도로나마 가능하게 된 것은 그 노트 덕분일 것이다.



### 3.3.2. 문장대체

“나는 돼지처럼 많이 먹어요”는 불어로 “Non, je mange comme un cochon (No, I eat like a pig)”가 아니다. 이것은 “많이 먹다”가 아니라, “어지럽게 흘리면서 먹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장대체의 경우는 축어적 번역이 아닌,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능적 번역과 관련있다. 독일어에서도 “Haben Sie gegessen?(식사하셨나요?)”라는 표현이 한국에서 처럼 언제나 인사말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의 “식사하셨나요?”라는 표현을 독일어로 번역할 시에는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인사말의 기능을 가진 다른 표현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문장의 무연성(Idiomatisierung) 개념과 관련있다. 한국어에서 “식사하셨나요?”라는 표현은 이미 그 표현의 요소들이 지칭하는 외부세계의 사건·사태들과 관련성을 잃어버려서 무연화되어 버린 것이다.

### 3.3.3. 문법적 대체

#### 3.3.3.1. 피동형 고치기

예를 들어, 원문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다음과 같은 한국어 피동문들은 능동문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쟁반에 실리어 가져왔는데 → 쟁반에 담아 가지고 왔는데

다리는 모기장 바깥으로 내밀어져 → 다리가 모기장 밖으로 빠져나와

침몰당했다 → 침몰했다

흐릿해져 있었다 → 흐릿했다

### 3.3.4. 말투 대체

대부분의 번역가는 성격과 지식 수준의 차이가 두드러진 여러 주인공의 대화를 거의 한 가지 어조로,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어조로 번역해 놓는다. 이런 현상은 희곡 번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작품에서 대화가 지니는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소홀히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주장하듯 정말로 번역이 ‘제2의 창작’이라면 번역자가 창작력을 가장 많이 발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러한 대화체의 번역 방법에서 부터이다. 안정효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흑인노예의 말투를 중국 화교의 말투로 대체시킨다.<sup>32)</sup>

원문: "Lawd, yo' new dress is plum nint." grumbled Mammy. "Ah gwine have a tim dryin' it an' brushin' it, so it'll be fit ter be wo'ter de weddin' temight."

번역문: “맴소사, 새 드레스 통째 망쳐 놓았군요.” 어머님이 투덜거렸다. “나 그 옷 오늘 밤 결혼식 입고 가라 손질 잘해 말리고 솔질 고생 많겠어요.”

## 4. 마무리

발머의 분류 원칙에 기대면 완전성의 규칙("어떤 일정한 유형을 가진 모든 현상들이 하나의 범주에 일치해야만 그 분류는 완전하다. (하나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과 선택성("하나의 현상이 기껏해야 하나의 범주에 소속되어야만 그 분류는 선택적이다. (하나의 현상이 두 개의 카테고리에 동시에 들어 있으면 안 된다))"의 규칙이 있다.<sup>33)</sup>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 본고의 체계수사학에서 발린 분류방식인 "첨가, 삭제, 대체, 치환, 등가"라는 변형 기제 중 치환과 등가에 대한 예가 제시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모든 번역의 유형이 치환과 등가라는, 선택성 규칙을 위배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본고에 뒤따르는 또 다른 과제가 될 수 있다. 본고가 가지 또 다른 한계점은 "각주 삭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삭제된 번역문이 반듯한 번역문의 원형에 조금이라도 근접해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명은 훗날의 과제로 미룬다.